

지역경제 저성장의 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

유원근*, 최호영**

강원대학교 지역경제학과*, 강원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A Study on the Structural Causes of Under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Won-Keun Yu*, Ho-Yeong Choi**

Dept. of Regional Economics, Kangwon University*

Institute for Regional Development, Kangwon University**

요 약 특정 지역이 경제적 저성장을 보이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은 향후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활한 성장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 된다. 본 연구는 강원도가 산업구조의 저위성과 영세 사업체들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구조적 특성을 지녀 자본의 축적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지역내총생산 및 지역산업연관표를 분석하여 지역의 입지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지역산업연관표, 지역내총생산, 산업구조, 입지계수, 생산유발계수

Abstract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structural causes on the economic underdevelopment of a specific region is an important work for the constituents to solve the submitted problems of those sources of the questions and to establish more active regional economic growth structure hereafter. Basically this paper recognizes that the fragile characteristics of accumulation structure is due to the higher portion of small enterprises and other unfavorable material conditions compared to other regions. On the basis of this estimation, we are going to present some materials to help establishing the development strategies by analys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ime serial GRDP and Regional Input-Output Tables.

Key Words : Regional Input-Output Tables,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Industrial Structure, Locational Quotient,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

1. 서론

강원도는 경제규모와 주민의 소득수준, 경제성장의 속도에서 전국 각 시도 및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하위권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인구의 면에서도 지속적인 비중의 감소와 고령화의 추세가 타 지역보다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 지역내 총생산의 경우 강원도는 1993년부터 2012년간 3.45 퍼센트의 평균성장률을 기록하여 전국 평균 4.67

* 본 논문은 2014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220140100)

Received 19 July 2014, Revised 29 August 2014

Accepted 20 Octo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Ho-Yeong Choi

(Institute for Regional Development, Kangwon University)

Email: hyiscp@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퍼센트를 밀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의 경우에도 전국의 추세와는 달리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의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정체와 성장 격차의 확대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지역간 발전 격차의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역 간 발전격차와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성장격차의 문제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저성장구조를 극복함으로써 지역의 정주권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지역경제의 외적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세계적 표준화와 단일경제권역화가 강화되면서 지역경제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위협의 요인으로 전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역경제의 성장은 지역의 고유한 부존자원과 생산요소 등을 기반으로 주변 시장 여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각 지역은 자신의 지역에 고유한 지역성에 의해 제한되며, 그것을 기반으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게 된다. 이 때 경제의 외적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는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며, 글로벌화와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지형은 기본적으로 이동성과 유연성을 수반하게 하는 것이다.

외적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도래 앞에서 지역이 어떠한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주체적 역량과 객관적 조건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은 스스로의 경제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적 성장의 기본 요소로서의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유기적 결합성의 추구와 함께 지역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경제 단위들 사이의 유기적 협력과 최적 효율을 충족시키는 전제가 된다. 나아가 이것은 지역 및 지역과 연계된 시장조건들에 충실하게 부합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의 저성장을 특징짓는 구조적 조건들을 분석하여 향후 저성장구조를 극복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의 마련에 필요한 지역의 기

초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대안이 성립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적인 관심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현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정책적 지원의 효과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식에 두어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역통계지표들, 그리고 지역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경제의 구조적 성격을 검토할 것이며, 지역의 특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을 분석하여 지역의 특화계수 및 산업별 전후방 연계성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성장구조가 전국 평균적 구조에 비해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를 점과 함께 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도출하여 지역의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발전이 어느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의 검토 및 연구방법

2.1 기존연구의 검토

본 연구는 지역의 산출량이 분석대상기간인 1993년부터 2012년간 어떠한 변화를 거쳤는가를 보고, 나아가 산업별 산출량 및 산업구조의 동향을 지역내총생산액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이후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지역의 산업별 유발계수들을 도출하고, 산업별로 지역에 강점이 있는 업종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파악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게 될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의 각 단계에서 산업부문간 기술적인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하고 최종수요를 외생변수로 하여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지역의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이미 상당한 정도 여러 논자들에 의해 분석의 방법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고 많은 연구 성과가 존재한다.

우선 지역문제에 관심을 두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의 수립에 다양한 방법적 차원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임용택[1]은 지역경제의 성장을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산업적 발전을 통해 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역의 1차 산업과 제조업의 융합을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세포융용 연구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당해 사

업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최근 정부 주도의 작물유전체 연구사업의 투자성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2].

지역의 현안을 전략산업과의 연계성 속에서 파악하고, 이를 지역산업연관분석을 결합시켜 지역발전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 고민창 외[3] 및 이연호 외[4]의 연구는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포괄하는 성과물로 파악된다. 고민창 외는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산업이 지니는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고, 이연호 외는 충청북도의 4개 전략산업이 지역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역산업연관분석과 계량경제모형을 결합하여 분석하고 있다.

산업연관분석을 국내 산업들 사이의 혁신의 파급효과 및 산업간 연계성의 파악, 그리고 산업의 구조적 분석을 위해 활용한 연구 성과도 있다. 김원규 외[5]는 경제의 대분류산업들 사이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장기균형관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또한 조병도 외[6]는 산업의 구조변화와 성장요인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연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초반 이후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개되고 있는 정책적 지원과 함께 한국에서 서비스경제로의 이행과 그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하봉찬[7]의 연구는 고용비중의 면에서 서비스산업 부분의 역할이 증대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그는 서비스산업의 고용 증가가 수요측면에서가 아니라 공급측면에서 견인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정책의 선택적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산업별 및 업종별 최종수요 성장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산업연관표의 활용의 사례 연구들이 발견된다. 먼저 심재희[8]는 서비스산업의 콘텐츠를 담보할 수 있는 지원분야로 문화산업의 경제구조를 산업분류표를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그것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강선아 외[9]는 감성 ICT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감성 ICT 산업과 그것의 융합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각각의 시장규모를 파악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감성 ICT 산업과 그 융합산업에 대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산업을 재분류 하였고, 이를 통해 시장의

규모와 각각의 유발계수를 연계시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출해 내고 있다.

또한 이주석 외[10]는 투입산출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내 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체적 업종별 효과를 추계하였다.

교육서비스 분야의 경제적 지원효과가 어떤 경제적 영향을 주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교육분야의 경제적 규모가 점차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심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송승민[11]은 중앙정부의 보육지원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밖에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 비율의 심화와 동반된 관련 식품산업 부문의 성장에 주목하면서 진형정 외[12]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고령친화적 식품 관련 부문의 성장이 여타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농림수산제품 및 화학제품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s) 시계열자료와 지역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하여 실증적으로 강원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역내총생산 관련 자료의 경우에는 1993년부터 2012년까지의 20년간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시계열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강원지역 GRDP 전체의 추이와 산업별 총산출액의 추이 등을 추정하였다.

강원지역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은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강원지역경제의 중간수요와 최종수요 및 중간투입과 부가가치 분포의 특징, 그리고 전국산업연관표와의 비교를 통해 강원지역경제의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강원지역의 산업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계수를 도출함으로써 강원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시계열 자료로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 및 통계청의 KOSIS에서 제공한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을 위해서는 2009년에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각종 계수들을 추정하였다. 본고에서 추정하여 사용하게 될 각종 계수는 지역경제를 분석하고 있는 산업의 단계에서 산업부문간 기

술적 상호의존관계를 포착하고, 최종수요를 외생변수로 하여 그것이 특정 지역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분석하는 지역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역산업연관표는 기본적으로 지역별 및 산업부문별 생산구조는 물론 지역간 및 산업부문간의 상호연관관계를 파악하는 지역산업연관분석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연관표를 열 방향으로 보면 각 산업부문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생산비용의 구성을 나타내는데, 이를 투입구조라고 한다. 투입구조는 생산활동에 사용한 원재료 및 부재료의 구성을 나타내는 중간투입과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내역을 나타내는 부가가치로 구분된다.

산업연관표를 행 방향으로 보면 각 산업부문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가 어떤 부문에 사용되었는지를 나타내며 이를 배분구조라고 한다. 배분구조는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에 원재료 및 부재료로 판매된 것을 나타내는 중간수요와 소비 투자 수출 등으로 판매된 것을 나타내는 최종수요로 구분된다. 따라서 중간투입과 중간수요는 산업간 거래내역을 나타내는데 이를 내생부문이라고 하며 부가가치와 최종수요를 외생부문이라고 한다[13].

지역산업연관표를 수식으로 보면 $AX + Y - M = X$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A 는 투입계수행렬, X 는 총산출액 벡터, Y 는 최종수요 벡터, M 은 수입액 벡터를 나타낸다. 이를 X 에 대해 풀면, $X = (I - A)^{-1}(Y - M)$ 가 되며, $(I - A)^{-1}$ 를 레온티에프 역행렬(Leontief Inverse) 또는 생산유발계수행렬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종수요 1단위 증가에 따라 유발되는 각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직간접 과급효과를 나타낸다[13,14].

지역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의 1단위 증가에 따라 유발되는 각 부문의 직접 및 간접 생산과급효과를 나타낸다. 지역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할 경우 지역내 생산과 외부로부터의 수입을 분리하여 지역내 생산거래표를 작성하는데, 이 지역내 생산거래표에서 생산과 수입의 균형식은 각각 $A^d X + Y^d = X$ 및 $A^m X + Y^m = M$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A^d 는 지역내생산 투입계수행렬, Y^d 는 지역내생산 최종수요열 벡터, A^m 은 지역수입 투입계수행렬, Y^m 은 지역수입 최종수요열 벡터이다.

여기서 $A^d X + Y^d = X$ 를 X 에 관해 정리하면 $X = (I - A^d)^{-1} Y^d$ 이 되며, 여기서 $(I - A^d)^{-1}$ 이 지역내 생산유발계수행렬이 된다.

다음으로 지역부가가치유발계수를 보자. 우선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지역부가가치는, $\hat{A}^v X = V$ 로 나타낼 수 있다. \hat{A}^v 는 지역부가가치투입계수의 대각행렬이고 V 는 지역부가가치 열벡터이다. 여기에 $X = (I - A^d)^{-1} Y^d$ 를 대입하면, $\hat{A}^v (I - A^d)^{-1} Y^d = V$ 가 도출되고, 이로부터 지역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 $\hat{A}^v (I - A^d)^{-1}$ 가 도출된다. 이는 최종수요 1단위가 발생할 때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효과를 나타낸다[13,14].

다음으로 고용유발계수는 고용계수의 대각행렬에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생산유발을 표시하는 생산유발계수행렬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우선 노동계수를 $l = L/X$ 이라고 하면, $L = lX$ 가 된다. 여기에 $X = (I - A^d)^{-1} Y^d$ 를 대입하면 $L = \hat{l} (I - A^d)^{-1} Y^d$ 가 된다. 여기서 $\hat{l} (I - A^d)^{-1}$ 가 고용유발계수행렬이 된다. 이 때 \hat{l} 은 노동계수의 대각행렬이고 $(I - A^d)^{-1}$ 은 지역생산유발계수행이다. 고용유발계수행렬은 한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효과를 나타낸다[15].

3. 강원 지역경제의 저성장 구조 분석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제권역의 광역화와 거점을 중심으로 한 개발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도시로의 경제력 집중이 지속되면서 전통적인 저성장지역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토대로 1999년 지역산업 진흥사업이 시작되었고, 2002년에는 전국적 확대와 함께 지자체 주도의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발굴 및 선택과 집중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정부의 지원도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강원도에서는 다핵구조의 정착을 위한 발전전략으로서 1992년 ‘강원도 건설 종합계획(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들어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2000-2020)’ 및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을 수립하여 지역의 역량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외부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지역내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성장의 한계성 노정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강원도의 성장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고, 지역개발 역량의 최적화 기반도 충실히 다지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강원 지역경제의 상대적 정체를 고착화시키는 저성장 구조가 근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지역의 저성장 구조의 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강원도의 지역내총생산 통계 및 지역산업연관표 등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3.1 강원지역경제의 저성장 환경 분석

3.1.1 성장패턴의 변화와 지역경제 성장성의 둔화

강원지역의 경제적 성장구조는 한국의 성장 패턴 변화와 관련하여 파악해야 한다. 특히 강원도는 한국경제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프레임 외부에 존재하는 지역으로, 지역의 성장이 주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형 성장구조를 지닌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자금자주적 재생산구조와 내수지향형 성장패턴을 그 특징으로 하여 대외의존형 성장패턴과는 이질적인 성격의 지역경제가 전개되어 온 것이다.

한국경제는 오랜 기간 수출주도형 성장패턴을 특징으로 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도 건설투자와 소비의 증대가 설비투자의 증대와 수출의 증대를 견인해 내는 구조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로 그간 유지되던 소비와 투자의 수출연관성이 훼손되고, 소비의 증가가 투자의 증가와 수출의 증가를 동반하던 선순환구조가 단절되었다. 2000년대 들어 제조업에서의 생산성 증가가 국내 소득의 증가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게 되면서 소비와 투자 등의 부진이 이어졌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와 국제화가 확대

되면서 중간재와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증가하면서 국내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율이 낮아져,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비중이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다¹⁾[16].

산업구조의 면에서 1993년부터 2012년간 강원도는 전국 평균과는 다른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국내총생산액을 기준으로 볼 때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제조업의 전국 평균 비중은 34.0 퍼센트에서 35.8 퍼센트로 증대하지만, 강원도는 31.8 퍼센트에서 24.8 퍼센트로 감소한다. 반면 강원도의 3차 산업 산출액 비중은 52.8 퍼센트에서 59.9 퍼센트로 증가한다. 이는 3차 산업의 비중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이 52.9 퍼센트에서 51.9 퍼센트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산업별 종사자수 비중에서도 2차 산업에 대한 종사자의 전국 비중은 1993년의 37.8 퍼센트에서 2012년 26.1 퍼센트로 저하하는데 비해 강원도의 경우 24.4 퍼센트에서 17.9 퍼센트로 저하한다. 반면 3차 산업 종사자 비중의 전국 평균은 61.9 퍼센트에서 73.7 퍼센트로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강원도에서는 75.3 퍼센트에서 81.6 퍼센트로 증가하고 있어 강원도의 3차 산업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Appendix 2).

이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부터 낮은 부문으로 취업자의 비중이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원 지역경제 전체의 성장률 하락과 GRDP 성장률의 전국 평균 이하로의 저하가 나타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Table 1>은 강원도의 평균성장률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 그 하락폭도 전국 평균보다 급한 것을 보여준다.

요컨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오던 수출의 증가는 외부성과 이를 통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효과보다는 생산성이 비교적 높은 산업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이로부터 생산성이 낮은 산업부문으로 노동이 이동하면서 생산성이 낮은 산업의 비중 증가와 동시 고용의 증가로 인해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강원도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1)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 1991년 515만 6천명(27.6%)을 정점으로 1997년 453만 7천명(21.4%), 2011년 410만 8천명(16.9%)으로 계속 감소하였다.

〈Table 1〉 Average Growth Rate of GRDP

(Unit : %)

	1990s	2000s	1992-2012
Nation	6.05	4.46	4.67
Gangwon	4.29	2.99	3.45

Source: Statics Korea, KOSIS, each year.

3.1.2 기업투자 환경의 불리성

기업의 투자환경이란 기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어 주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게 해 주는 정책적·제도적·행태적 환경을 말한다[17]. 지역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해당 산업분야에 대한 시장수요의 존재, 관련산업의 존재 여부 및 집적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체적으로 기업의 투자환경은 기초투자환경, 산업집적환경, 인프라환경,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 등의 4대 영역으로 구분된다[17]. 먼저 기초투자환경은 기본적인 생산요소의 조달이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원활한가에 대한 것을 측정하며 주로 인력, 토지 그리고 금융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집적환경은 산업적 집적의 여부를 측정하며 중간재 및 관련 부품의 조달과 제품의 판매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나 소비자와의 접근성 등이 고려대상이다. 인프라 환경은 교통이나 물류시설 등의 물적 인프라,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지식 인프라와 인적 자원에 대한 사항, 그리고 주거와 교육 및 의료 등의 생활기반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정책환경은 지자체가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지의 여부와 지역 내로의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행정적 및 물리적 지원의 여부를 평가한다.

전국을 7개 광역권²⁾으로 구분할 때, 수도권과 동남권 및 대경권의 기업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강원과 제주권, 그리고 호남권과 충청권의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17]. 강원권은 산업집적이나 시장수요의 면에서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인적 자원의 지역 외부로의 이출 현상이 두드러진 점을 감안할 때 지식 인프라의 측면에서도 불리한 환경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기업투자환경의 면에서 강원도가 불리할 것이라는 점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주력산업³⁾의 성장요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주력산업 중 특정 산

업의 산출량 변화에 대해 국내수요증대, 수출증대, 기술변화, 수입대체 등 4가지 요인 중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신중협외 연구[18]에서 2000년대 후반기 10대 주력산업 중 다수의 산업에서 성장 동인의 변화가 발생한 것을 밝혀냈다. 즉, 섬유와 일반기계 산업은 내수주도형 성장을, 자동차와 가전산업은 수입대체형 성장을, 조선은 기술변화형 성장으로 각각 동인이 바뀐 것이다. 이들 요인 중 특히 내수주도형 성장요인이 약진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국내 10대 주력산업의 성장 동인이 과거 수출주도형에서 최근 내수주도형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리하여 한국경제의 산업구조가 점차 선진국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축적구조의 변화는 소득원의 약화 및 인구의 감소 등으로 내수기반이 점차 악화되는 강원경제에 기업유치와 같은 제조업 중심의 개발전략이 점차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주력산업과 강원경제 사이의 구조적 연계성이 취약하다는 점은 향후 개발전략이 지역의 고유한 특화산업의 발굴과 정책적 지원을 가시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3.2 GRDP를 통해 본 강원 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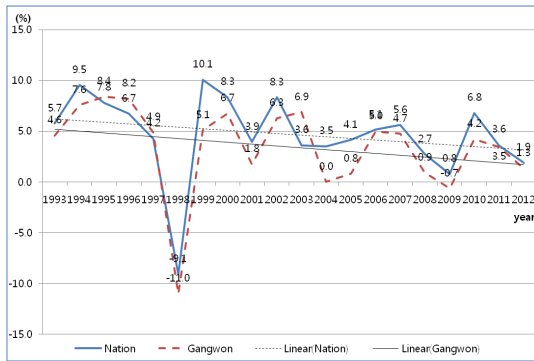
3.2.1 강원도의 GRDP 및 인구의 동향

강원도의 GRDP 증가율은 1993년부터 2012년간 전국의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총생산의 급격한 저하의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전국 및 강원도의 GRDP 증가율은 모두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및 강원도의 GRDP 증가율 추세를 보면 강원도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에 비해 더 가파르게 저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⁴⁾

2) 7대 광역권은 각각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등을 말한다.

3) 여기서 주력산업이란 10개 산업분야를 말하는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여 일반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정보통신기기, 석유화학, 섬유, 자동차, 철강, 가전 등을 말한다.

4) 강원도와 전국 평균 GRDP 성장률 추세식은 각각 $Y = -0.184X + 5.394$ 와 $Y = -0.159X + 6.345$ 로 나타났다.



[Fig. 1] The Trends of Gangwon and Nation GRDP Growth Ratio(1992~2012)

[Fig 1]에서 보는 것처럼 1997년의 외환위기와 그 여파가 가장 심하게 나타난 1998년 강원도 GRDP는 전국 평균보다 약 2.0퍼센트 포인트 크게 악화되는 현상을 보였고,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강원도는 전국평균보다 더 악화되고 있어, 강원도가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GRDP 비중을 보더라도 강원도의 비중은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경우 강원도의 GRDP는 총 27.7조원으로 전국 총생산액의 2.5%를 점하였는데, 이는 1993년의 3.08 퍼센트에 비해 약 0.52 퍼센트 포인트 저하한 것이다<Table 2>.

<Table 2> The Trends of Gangwon and National GRDP, and the Portion of Gangwon
(Unit: billion Won, %)

Categories	1993	1998	2003	2008	2012
Nation(A)	485,607	579,807	806,524	991,677	1,126,743
Gangwon(B)	14,962	17,610	22,828	25,530	27,711
B/A(%)	3.08	3.04	2.83	2.57	2.46

Source: Statics Korea, KOSIS; National Account, The Bank of Korea, each year

강원 지역경제의 산업부문별 비중을 GRDP 기준으로 보면 <Table 3>과 같다. 강원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생산액 비중이 현저히 높은 산업분야는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림어업과 광업의 상대적 비중은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Ratio of Respective Industry to GRDP(2012)

(Unit: billion Won, %)

Categories	Gangwon		Nation		A/B (%)
	Amount (A)	Portion (%)	Amount (B)	Portion (%)	
Agri/For/Fish	1,631	5.9	28,234	2.5	5.8
Mining	638	2.3	1,624	0.1	39.3
Manufacture	3,386	12.2	325,841	28.9	1.0
Elec/Gas/Water	712	2.6	22,642	2.0	3.1
Construction	2,123	7.7	53,767	4.8	3.9
Service	16,613	59.9	584,757	51.9	2.8
Total	27,711	100.0	1,126,744	100.0	2.5

Notes: Agri/For/Fish: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Source: Statics Korea, KOSIS; National Account, The Bank of Korea, 2012.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로 나타나 강원도의 개발전략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유치나 제조업을 위한 배후단지의 조성 등과 같은 전통적 2차 산업 중심의 전략이 비교열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역내 1차 전통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만큼 우수한 자연적 환경과 어메니티(amenity) 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Table 4>는 강원도의 전국 대비 인구 비중이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한 것을 보여준다. 인구수는 IMF 구제금융을 받던 1997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여 1999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특징적인 점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그 여파를 경험하던 시기인 1998년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도래한 국제금융위기가 전세계를 통타하던 2008년 직후 강원도 인구의 절대적 크기가 크게 증가한 것인데, 경제위기와 강원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사이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Table 4> Trends of Population of Nation and Gangwon, and the Portion of Gangwon

(Unit: persons, %)

	1993	1998	2003	2008	2012
Nation(A)	45,001	46,991	48,387	49,540	50,948
Gangwon(B)	1,540	1,553	1,527	1,509	1,537
B/A(%)	3.4	3.3	3.2	3.0	3.0

Source: Statics Korea, KOSIS

전체적으로 볼 때, 1993년부터 2012년까지 강원도의 인구증가율의 추세는 전국 평균과는 다른데, 강원도와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 추세선의 기울기는 각각 0.029와 -0.021로 추계되어 강원도 인구의 비중 감소에도 인구증가율의 추세는 양의 값을 보였다.⁵⁾

3.2.2 GRDP기준 산업구조 변화 추이의 특징

강원도 GRDP에서 산업별 비중을 보면, 농업, 광업, 건설업 등에서 전국 평균보다 현저한 우위를 보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정보통신부문이나 금융 및 보험업 등 상대적 고부가가치 부문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관광관련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의 분야에서 전국평균을 초과하였다<Appendix 3>.

강원도의 1차 산업 비중은 2000년 6.9 퍼센트에서 2012년 5.9 퍼센트로 약 14.5 퍼센트의 감소를 보여 전국 평균 약 32 퍼센트의 감소와 차이를 보였다<Appendix 3>. 그러나 지리적 특성상 강원도는 청정 농수산물의 생산에 유리한 입지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농식품 가공산업 및 연계산업에서 발전전망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강원도에서의 비중이 0.8 퍼센트 증가한데 비해 전국 평균은 24퍼센트 증가하여 강원도의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Appendix 3>. 한편 광업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 그리고 건설업이 포함된 2차 산업의 경우 전국 평균은 34 퍼센트에서 35.8 퍼센트로 5 퍼센트 포인트 증가한데 반해, 강원도의 비중은 21 퍼센트 포인트 감소하여 상대적 비중이 더욱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강원도에서 접근성과 산업의 집적도의 측면에서 제조업 발전에 불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3차 산업의 경우 전국 평균 비중은 1993년 52.9 퍼센트에서 2012년 51.9 퍼센트로 약 1.9 퍼센트 포인트 감소한 반면, 강원도는 각각 52.8 퍼센트에서 59.9 퍼센트로 13.4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였다<Table 5>.

강원도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증대한 것은 상대적 고부가가치 2차 산업군의 감소와 상대적 저부가가치 3차 산업군의 증대라는 산업 재편이 강원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강원도의 산업구조가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경제의 위기에 대해 한계기업들이 정리되어

자본과 노동이 제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이동한 것을 말해 준다.

<Table 5> The Trends of Industrial Structure of Gangwon Based of GRDP

(Unit: %)

Categories		1993	1998	2003	2008	2012
N a t i o n	Agri/for/fish	4.5	4.2	3.0	2.8	2.5
	Mining	0.3	0.2	0.2	0.2	0.1
	Manufacture	21.9	21.3	23.0	25.9	28.9
	Elec/Gas/Water	1.5	1.9	1.9	2.0	2.0
	Construction	10.3	9.2	7.1	6.1	4.8
	Service	52.9	54.6	54.0	52.6	51.9
G a n g w o n	Agri/for/fish	7.0	7.2	5.6	6.0	5.9
	Mining	2.3	1.7	2.8	3.0	2.3
	Manufacture	12.9	12.4	11.7	10.9	12.2
	Elec/Gas/Water	1.9	1.8	1.7	2.1	2.6
	Construction	14.7	14.4	12.2	9.3	7.7
	Service	52.8	55.0	56.6	59.9	59.9

Source: Statics Korea, KOSIS; National Account, The Bank of Korea, each year.

3.2.3 사업체 규모별 비중 변화의 추이와 특징

강원도의 산업구조를 사업체수의 면에서 보면 <Table 6>과 같다. 강원도의 1차 산업의 비중은 1993년 0.18 퍼센트에서 2012년 0.13 퍼센트로 줄어드는 반면, 전국 평균은 0.05 퍼센트에서 0.07 퍼센트로 증가하였다. 그래도 강원도의 비중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볼 때 2차 산업의 비중 저하와 3차 산업의 비중 증가가 일반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이며, 1998년과 2008년을 기점으로 그 경향은 강화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와 이어진 국제금융시장 동요의 파급효과에 의한 것으로 한계기업의 파산과 상대적 저부가가치형 산업으로 자본과 노동이 이동한 결과로 파악된다.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서 강원도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차 산업에서는 강원도의 비중이 낮았다. 1993년부터 2012년간 2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24.2 퍼센트에서 17.9 퍼센트로 약 26 퍼센트 포인트 감소한 데 비해 전국 평균은 37.8 퍼센트에서 26.1 퍼센트로 약 31 퍼센트 포인트의 감소했다<Table 7>.

5) 분석기간 동안 강원도 및 전국의 인구증가율 추세식은 각각 $Y = 0.029X - 0.361$ 및 $Y = -0.021 + 0.907$ 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Trends of the Number of Enterprises and Its Industrial Portion of Nation and Gangwon

(Unit: %)

Categories		1993	1998	2003	2008	2012
Nation	1st Indust	0.05	0.11	0.07	0.06	0.07
	2nd Indust	14.64	12.42	12.96	12.80	13.13
	3rd Indust	85.31	87.47	86.97	87.13	86.80
Gangwon	1st Indust	0.18	0.16	0.11	0.10	0.13
	2nd Indust	10.07	8.67	9.11	9.04	9.22
	3rd Indust	89.75	91.17	90.78	90.85	90.65

Source: Statics Korea, KOSIS.

〈Table 7〉 The Trends of Portion of Employed (Nation and Gangwon)

(Unit: %)

Categories		1993	1998	2003	2008	2012
Nation	1st Indust	0.21	0.49	0.24	0.18	0.17
	2nd Indust	37.81	30.40	28.57	26.01	26.09
	3rd Indust	61.98	69.10	71.19	73.81	73.74
Gangwon	1st Indust	0.42	0.59	0.56	0.36	0.45
	2nd Indust	24.24	19.94	19.49	18.75	17.89
	3rd Indust	75.34	79.47	79.95	80.89	81.65

Source: Statics Korea, KOSIS

3차 산업의 종사자수 비중은 전국 평균 및 강원도 모두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그 증가율은 강원도가 8.4 퍼센트 포인트인 데 비해 전국 평균은 18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여 전국 평균에서 3차 산업으로의 노동이동이 강원도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2차 산업의 축소와 3차 산업의 증대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Table 8〉은 사업체 규모별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먼저 종사자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체의 비중이 강원도에서 1993년 93.3 퍼센트에서 2012년 93.8 퍼센트로 증가한 데 반해, 전국 평균은 93.2 퍼센트에서 92.4 퍼센트로 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 영세 사업체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그 비중이 증가하는 이 현상은 강원도의 산업구조적 취약성이 강화되는 것을 말해준다.

〈Table 8〉 The Portion the Number of Enterprises and Employed Per Scale

(Unit: %)

Categories		Persons	1993	1998	2003	2008	2012
Nation	A	1-9	93.2	94.3	93.3	92.6	92.4
		10-99	6.3	5.3	6.4	7.0	7.1
		100-299	0.3	0.3	0.3	0.3	0.4
		300 above	0.1	0.1	0.1	0.1	0.1
	B	1-9	39.0	44.0	45.3	42.0	41.1
		10-99	30.0	29.3	32.9	34.2	34.1
		100-299	10.0	10.3	9.6	10.5	10.9
Gangwon	A	300 above	21.0	16.4	12.2	13.4	13.9
		1-9	93.3	95.1	94.4	94.0	93.8
		10-99	6.3	4.7	5.4	5.8	6.0
		100-299	0.3	0.2	0.2	0.2	0.2
		300 above	0.1	0.1	0.0	0.1	0.1
	B	1-9	45.5	51.3	53.4	50.2	48.8
		10-99	34.7	30.8	33.2	34.0	34.9
		100-299	11.1	7.9	6.2	6.7	7.2
		300 above	8.7	10.0	7.2	9.1	9.1

Note: A, Number of Enterprises; B, Number of Employed

Source: Statics Korea, KOSIS.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1993년부터 2012년까지 강원도의 10인 이하 소기업체 종사하는 종사자수의 비중은 45.5 퍼센트에서 48.8 퍼센트로 7.5 퍼센트 포인트 증가한 반면, 전국 평균은 39 퍼센트에서 41.1 퍼센트로 5.4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쳐 강원도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강원도에서는 10인 이하의 소기업체에 대한 취업 비중이 타지역 보다 높을 뿐 아니라 증가세도 더 가파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강원도의 고용구조가 고부가가치형 2차 산업으로부터 저부가가치형 3차 산업으로의 재편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내 소득원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전반적인 제조업 기반의 부족, 저부가가치형 3차 산업의 높은 비중, 10인 이하 영세 사업체의 상대적 과다 등이 강원 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규정하는 것이다.

3.3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강원 지역경제의 구조적 특징

3.3.1 강원 지역경제의 최종수요에 의한 유발계수의 특징

먼저 강원 지역의 최종수요 1단위 증가에 의해 유발되는 각 부문의 직접 및 간접 생산과급효과인 생산유발계수를 살펴보면, 광산품과 조립가공업종인 금속제품, 일반

기계,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등에서 생산 파급효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광업 부문의 상대적 비중이 큰 점이 반영되어 기초소재업종인 석유 및 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의 생산유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Appendix 1>.

한편 강원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관광산업 관련 업종인 음식점 및 숙박업과 도소매업,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강원지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강원도의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관광관련산업의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져, 지역의 특화전략의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보면, <Appendix 1>에서 보는 것처럼 강원지역은 상당한 업종에서 전국 평균보다 부가가치유발계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특성상 농림수산물과 광산품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광의의 관광관련 산업인 도소매업을 포함한 음식점 및 숙박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업은 1차 전통산업의 생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이를 2차 가공산업과 결합시키고, 생산과정 자체를 관광상품화하여 볼거리와 마케팅을 결합시키는 6차산업화의 중요한 기반산업으로 간주된다. 생산유발효과의 면에서 강원지역의 농림수산업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부가가치유발효과의 면에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전략산업적 특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유발계수의 경우 농림수산업종과 광산업종, 그리고 음식료품 등의 소비재업종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Appendix 1>. 특징적인 것은 광의의 관광관련 산업인 도소매업에서만 높은 취업유발효과를 보일 뿐, 정작 음식점 및 숙박업종에서는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강원 지역에 관광관련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의 유기적 연계성이 취약한 구조적 원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3.3.2 강원지역 입지계수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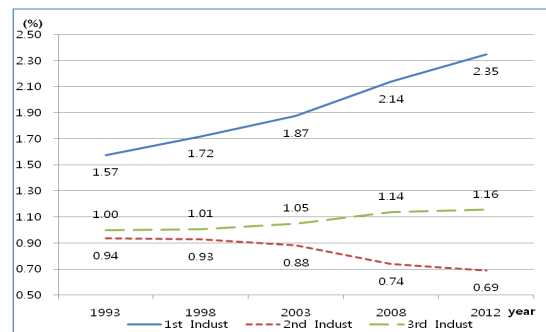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 LQ)란 국가경제에 대해 특정 지역 산업의 상대적 비중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으로 지역경제분석에서 상당히 자주 활용되는

방법이다. 즉 어떤 지역의 특정산업이 전국의 동일산업에 대해 상대적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로 i 지역의 j 산업에 대한 입지계수는 (eq 1)과 같이 표현되며 입지계수가 1을 초과할 경우 해당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정의된다.

$$LQ_i^j = \frac{(X_i^j / X_i)}{(X^j / X)} \quad (\text{eq 1})$$

이때 X_i^j 는 i 지역의 j 산업에 대한 생산액을, X_i 는 i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액을, X^j 는 전국의 j 산업에 대한 생산액을, 마지막으로 X 는 전국의 전산업에 대한 총생산액을 나타낸다. 위의 식에서 LQ_i^j 가 1보다 크면 i 지역의 j 산업은 전국의 구성비보다 크다는 것으로, i 지역은 j 산업에 특화된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LQ_i^j 가 1보다 작으면 당해 산업의 구성비가 전국의 구성비보다 작아 당해지역에 당해산업으로 생산품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4,15]. 따라서 그 지역의 특화전략을 담보하기 위한 산업분야의 선택은 그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Fig 2]에서 보는 것처럼 강원 지역경제의 경우 1993년부터 2012년간 농림어업 부문에서는 입지계수가 1을 크게 초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2차 산업은 전기간에 1을 밑돌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입지계수가 저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강원도가 제조업의 유치와 지역 경제의 성장을 모색한다는 외생적 발전전략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



[Fig. 2] The Trends of Location Quotient Based on GRDP(1993–2012)

업종별로 볼 때, 광업의 경우 특징적으로 상대적 특화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자원부존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특히 기존의 탄광이 석탄사업합리화사업의 실시 이후 상당한 정도 정리가 되었음에도 GRDP에 비해 광업 부문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 특화도가 높게 산출된 것이다. 광업 부문 입지계수의 시계열적 추세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의 개발전략상 광업 관련 산업의 발전이 필요한 객관적 조건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광업 관련 소재산업과의 관련성을 높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우선 입지계수가 관광관련 산업인 숙박음식점업에서 1을 넘고 있고, 유통 및 운수, 그리고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종에서는 1이하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 예술, 여가 부문과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 업종에서 유리한 입지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9>.

<Table 9> The Trends of Location Quotient Based on GRDP(1993-2012)

Categories	1993	2000	2006	2012
Agri/For/Fish*	1.57	1.85	2.04	2.35
Mining	8.24	10.88	11.96	15.97
Manufacture	0.59	0.52	0.42	0.42
Elec/Gas/Water	1.24	1.03	1.08	1.28
Construction	1.43	1.48	1.69	1.61
Wholesale/Retail	0.58	0.70	0.74	0.72
Transport	1.20	0.95	1.04	0.93
Restaurants, hotels	1.41	1.66	1.57	1.81
Inform/Commun**	0.46	0.47	0.57	0.52
Financial, insurance	0.53	0.69	0.64	0.61
Estate and Renting	0.61	0.76	0.78	0.88
Business Activities	0.34	0.40	0.44	0.53
Public Admin.	2.51	2.82	2.88	3.13
Education	1.27	1.35	1.31	1.43
Health/Social Work	1.07	1.01	1.09	1.11
Art/Sports/Leisure	0.86	1.12	2.66	2.83
Other Service Activities	0.74	0.88	1.03	1.02

Note: *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urce: Statics Korea, KOSIS; National Account, The Bank of Korea, each year.

전체적으로 <Table 9>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차 산업의 우위성을 발휘하게 하면서 2차 산업의 열위성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는 사실이다. 산업간 연계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성장전략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시키면서 양자가 공존할 수 있게 하고, 이 과정 자체를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3차 산업화 전략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상당한 쾌적성 자원을 보유하는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비록 계절적 편차를 보이는 해도 대표적인 산업분야로 관광관련 산업이 거론될 정도로 일반화된 평가를 지닌다. 입지계수의 면에서 농림어업과 결합된 3차 서비스산업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효과적으로 결합된다면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업간 융합에 입각한 부가가치사슬의 확대로 지역의 소득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의 선정시 지역산업의 산업연관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략산업은 당해 산업 뿐 아니라 연계산업의 발전이 동반되어야 부가가치효과를 최적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산업과의 전후방 연계성이 높은 산업이 전략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개발 전략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또한 전략산업과 연계산업의 융합을 통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들을 동반 육성시키는 성장전략은 동일한 맥락에서 중요하다[4].

강원도의 경우 경제의 규모, 주민의 소득수준, 그리고 경제성장의 속도 등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또한 기업의 투자환경적 측면에서도 제주 및 호남권역과 함께 기초투자환경, 산업집적환경, 인프라환경, 지자체의 정책환경 등의 전 영역에서 비교 열위의 조건을 지닌다. 또한 축적패턴의 변화가 2000년대 후반 이후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강원도의 내재적 축적역량은 소득원의 약화와 주력산업과의 직접적 연계성의 취약성 등에 의해 성장의 동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강원도의 축적패턴을 보더라도 GRDP의 하락 추세는 전국 평균에 비해 가파르게 나타났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강원도의 비중도 점차 저하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업

구조의 면에서도 강원도는 농업어업과 광업 등 1차 전통 산업과 채취산업에서만 우위를 보일 뿐, 고부가가치형 2차 산업에서는 상대적 저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 산업구조의 측면에서도 강원도는 종사자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체의 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취약한 축적구조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비중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적 특화를 보여주는 입지계수를 통해 본 강원도의 산업구조는 지역의 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제시할 정도의 특화산업 분야가 드러나지 않고 있고, 지역의 특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관광 관련산업 부문의 기반 인프라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강원 지역경제의 경우 지역의 특성상 접근성의 면에서나 시장수요 및 산업집적의 면에서 전통적인 기업유치와 같은 방식을 통한 2차 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채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의 청정성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부가가치의 사슬을 형성시킬 수 있는 기반을 지니고 있다. 특히 농업은 1차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는 현실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차 가공산업과의 융합을 위한 기반 산업이다.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여 향후 경쟁력 있는 농식품가공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전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및 농촌의 쾌적성 자원에 대한 선호도의 증대 등 강원도의 자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지역 특화를 위한 혁신 클러스터는 지역마다 그들의 여건에 적합한 차별화 된 전문적 지식 산업 영역을 기반으로 관련 분야의 육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기반과 조직이 구축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분야의 특화된 인적 자원의 결집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19].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여 하나의 수요가 연쇄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자원과 인적 기반이 유기적으로 협력적 관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유기적 경제모형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 모형은 지역의 자원과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여 이들 사이의 협력과 공존,

그리고 상호의존성의 강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 사슬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이처럼 지역의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원의 강화를 통한 정주권의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경제모형의 구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2014 Research Grants from Kangwon National University(No. 220140100).

REFERENCES

- [1] Yong-Taik Lim, A Study on the National Economic Impacts of Cell Applied Research Project Using Input-Output Analysi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es, Vol. 25, No. 4, pp. 2665-2688, 2012.
- [2] Yong-Taik Lim, A Study on the Economic Impacts of Crop Dielectric Research Project Using Input-Output Analysi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es, Vol. 26, No. 1, pp. 247-274, 2013.
- [3] Min-Chang Ko, Soon-Hu So, Eui-Sung Park, In-Gue Lee, A Study of the Regional Economic Impacts of the Growth Engine Industries in Jeonbuk,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es, Vol. 26, No. 2, pp. 825-845, 2013.
- [4] Yeonho Lee, Kwan-Hee Kim, Tae-Hyun Kwon, Growth Factors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with Inter-Industry Linkages: Chungbuk Provinc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es, Vol. 25, No. 1, pp. 545-566, 2012.
- [5] Won-Kyu Kim, Jin-Woong Kim, The Inter-industrial Spillover Effect of Productivity via Industrial Linkag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es, Vol. 26, No. 3, pp. 2547-2564, 2013.
- [6] Byung-Do Cho, Jun-Ho, Jeong, The Changes in

- Industrial Structures and the Elements of Growth for the Korean Economies Based on an Input-Output Industrial Analysis(1995-2008),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es, Vol. 24, No. 6, pp. 3433-3456, 2011.
- [7] Bong-Chan Ha, A Study on the Shift to Service Economy in Employment and Its Determinants in Korea,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es, Vol. 25, No. 6, pp. 3767-3784, 2012.
- [8] Jae-Hee Shim, A Study on Economic Ripple Effects of Cultural Industr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es, Vol. 26, No. 6, pp. 2731-2750, 2013.
- [9] Sun-A Kang, Sumi Cho, Economic Impact of Emotional ICT Industry on Korean Economy Using Input-Output Analysi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es, Vol. 26, No. 4, pp. 1739-1764, 2013.
- [10] Joo-Suk Lee, So-Yoon Kwak, An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s of the Software Industr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es, Vol. 25, No. 5, pp. 3431-3450, 2012.
- [11] Seung-Min Song, Analysis on the Ripple Effect of Child Care Service Support by Government - Based on I/O Table Analysi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es, Vol. 23, No. 5, pp. 2713-2731, 2010.
- [12] Hyun-Joung Jin, Byeong-Yong Kim, Hee-Dong Woo, An Input-Output Analysis for the Ripple Effects of Foods-for-Elderly Sector on the Whole Industr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es, Vol. 26, No. 3, pp. 1179-1197, 2013.
- [13] The Bank of Korea, 2005 Regional Input-Output Tables, 2009.
- [14] Chun-Keun Lee,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Hakmun Publishing Co., 2006.
- [15] Won-Keun Yu, Ho-Yeong Choi, A Policy Plan for Promoting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Development Aid Project on the Closed Min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1, pp. 151-159, 2011.
- [16] Pae-Kun Choi, Externality of Export in Korean Economic Growth, 1911-2011,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es, Vol. 26, No. 1, pp. 431-449, 2013.
- [17] Woong-Hee Park, Analysing the Investment Circumstances between Great-sphere Economy Regions in Korea,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es, Vol. 25, No. 5, pp.3345-3364, 2012.
- [18] Jong-Hyup Shin, An Analysis on Growth Factors of 10 Key Industries in Korea Using Structural Decomposition,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es, Vol. 26, No. 6, pp. 2477-2496, 2013.
- [19] Kyung-Ryung Sung, Joon-Shik Park, Duk-Bai Lee, A Study on the Strategy of Gangwon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Sociological Perspective, working paper, The Bank of Korea, Gangwon Branch, 2012.

유 원 근(Yu, Won-Keun)



- 1989년 8월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1997년 2월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1997년 8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지역경제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국제경제, 경제정책
- E-Mail : ywkkkm@kangwon.ac.kr

최 호 영(Choi, Ho-Yeong)



- 1993년 2월 :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2000년 2월 :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연구위원
- 관심분야 : 노동경제학, 경제정책
- E-Mail : hyiscp@hanmail.net

Appendix 1

Producti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s of Gangwon Province(2005 reference year)						
Categories	Production		Value Added		Employment†	
	A	B	A	B	A	B
Agri/For/Fishing	1.679	1.729	0.873	0.856	54.58	54.52
Mining	1.751	1.736	0.863	0.852	13.81	10.69
Food, beverages	1.895	2.058	0.858	0.773	20.23	24.53
Textiles and leather	2.181	2.061	0.661	0.652	28.75	23.07
Wood, paper	2.043	2.020	0.628	0.640	22.73	13.97
Printing and copy	1.922	1.981	0.834	0.822	22.45	20.70
Petroleum and coal	2.434	1.939	0.548	0.410	10.51	7.98
Chemicals	2.031	2.042	0.702	0.603	12.81	9.98
Non-metallic	2.038	2.108	0.714	0.735	10.36	12.39
1st metallic	1.775	2.244	0.471	0.521	4.84	6.55
Metal	2.465	2.383	0.705	0.716	18.75	13.56
Machinery	2.282	2.343	0.720	0.706	14.36	12.91
Electricity and elect.	2.135	1.932	0.630	0.561	13.32	9.69
Precision equip.	2.093	2.078	0.628	0.661	13.27	19.11
Transport equip.	2.527	2.481	0.709	0.667	11.40	13.01
Other Manufacturing	2.143	2.211	0.726	0.708	23.11	19.15
Electric power, gas*	1.508	1.537	0.788	0.710	4.87	4.63
Construction	2.026	2.031	0.820	0.815	16.63	16.69
Wholesale, retail	1.665	1.650	0.913	0.907	43.46	37.82
Restaurant, hotels	1.758	2.017	0.879	0.841	38.47	40.45
Transport	1.700	1.636	0.762	0.711	17.53	18.14
Communication, broad**	1.838	1.833	0.898	0.889	10.29	10.44
Financial, insurance	1.760	1.653	0.929	0.940	16.34	12.72
Estate, renting	1.509	1.491	0.952	0.944	10.80	10.78
Public Admin. defence	1.543	1.558	0.900	0.897	12.22	15.14
Education, health	1.573	1.553	0.905	0.906	21.60	20.56
Social, other service	1.892	1.926	0.892	0.876	26.89	29.88
Others	2.755	2.849	0.781	0.755	29.52	28.92
Average	1.962	1.967	0.775	0.753	19.43	18.50

Note: Production: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Value Added: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 Employment: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A: Gangwon; B: Nation

* Electricity and electric equipment; ** Communication and broadcast service

† The Unit of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person per billion Won.

Source : The Bank of Korea, 2005 Regional Input-Output Tables, 2009.

Appendix 2

Trends of the Portion of GRDP per Industry, Nation and Gangwon(1993-2012)																	(Unit: %)				
Categories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Nation	1st Indust	4.5	4.2	4.2	4.0	3.9	4.2	4.1	3.7	3.6	3.2	3.0	3.0	3.0	2.8	2.7	2.8	3.0	2.7	2.4	2.5
	2nd Indust	34.0	33.3	33.2	33.5	33.2	32.6	32.5	32.3	32.2	31.6	32.2	33.5	33.7	34.2	34.4	34.3	34.1	35.8	36.4	35.8
	3rd Indust	52.9	53.9	53.9	53.7	54.1	54.6	54.1	54.1	54.8	54.4	54.0	53.2	53.1	52.8	52.5	52.6	53.1	51.7	51.3	51.9
Gangwon	1st Indust	7.0	7.1	7.2	6.9	6.8	7.2	7.3	6.9	6.4	6.2	5.6	5.8	5.9	5.8	6.1	6.0	6.8	6.1	5.9	5.9
	2nd Indust	31.8	31.0	29.8	30.7	30.5	30.3	26.9	27.2	26.7	26.3	28.4	27.5	26.0	26.7	26.3	25.3	25.4	25.5	25.1	24.8
	3rd Indust	52.8	53.5	54.3	53.6	54.2	55.0	58.4	57.7	58.6	58.0	56.6	57.9	59.6	58.7	59.0	59.9	59.6	59.9	59.8	59.9
Trends of the Portion of Employed per Industry, Nation and Gangwon (1993-2012)																	(Unit: %)				
Categories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Nation	1st Indust	0.21	0.30	0.40	0.44	0.45	0.49	0.47	0.41	0.25	0.24	0.24	0.21	0.21	0.20	0.21	0.18	0.17	0.17	0.18	0.17
	2nd Indust	37.8	37.0	35.0	34.8	32.9	30.4	30.2	29.8	29.3	28.6	28.6	28.6	28.5	27.7	26.8	26.0	25.3	26.5	26.5	26.1
	3rd Indust	61.9	62.7	64.6	64.7	67.2	69.1	69.3	69.8	70.5	71.2	71.2	71.2	71.3	72.1	72.9	73.8	74.6	73.3	73.4	73.7
Gangwon	1st Indust	0.42	0.65	0.64	0.51	0.52	0.59	0.61	0.53	0.44	0.47	0.56	0.45	0.41	0.44	0.42	0.36	0.37	0.45	0.45	0.45
	2nd Indust	24.2	24.2	22.5	22.7	21.9	19.9	18.3	18.6	19.0	19.4	19.5	19.0	18.7	18.3	18.1	18.8	18.0	18.4	18.2	17.9
	3rd Indust	75.3	75.2	76.8	76.8	77.6	79.5	81.1	80.9	80.6	80.1	79.9	80.6	80.9	81.3	81.5	80.9	81.6	81.2	81.3	81.7

Source: Statics Korea, KOSIS.

Appendix 3

Trends of Portion of GRDP per Industry										
Categories	2000				A/B	2012				
	Gangwon(A)		Nation(B)			Gangwon(A)		Nation(B)		A/B
	GRDP	Portion	GRDP	Portion		GRDP	Portion	GRDP	Portion	
GRDP	19,753,006	100.0	691,467,810	100.0	2.9	27,711,238	100.0	1,126,743,542	100.0	2.5
Agri/For/Fish*	1,358,011	6.9	25,750,850	3.7	5.3	1,631,138	5.9	28,234,487	2.5	5.8
Mining	595,895	3.0	1,917,134	0.3	31.1	637,615	2.3	1,623,694	0.1	39.3
Manufacture	2,386,312	12.1	161,241,630	23.3	1.5	3,386,064	12.2	325,841,292	28.9	1.0
Elec/Gas/Water	368,602	1.9	12,578,420	1.8	2.9	712,314	2.6	22,642,357	2.0	3.1
Construction	2,024,044	10.2	47,935,514	6.9	4.2	2,122,897	7.7	53,766,862	4.8	3.9
Wholesale/Retail	1,256,047	6.4	63,200,381	9.1	2.0	1,557,754	5.6	88,427,347	7.8	1.8
Transport	784,776	4.0	28,888,713	4.2	2.7	1,078,892	3.9	46,972,604	4.2	2.3
Restaurants, hotels	750,259	3.8	15,856,210	2.3	4.7	875,442	3.2	19,690,055	1.7	4.4
Inform/Commun**	308,302	1.6	23,121,977	3.3	1.3	606,449	2.2	47,153,771	4.2	1.3
Financial, insurance	763,562	3.9	38,855,297	5.6	2.0	1,106,302	4.0	74,081,722	6.6	1.5
Estate and Renting	1,188,200	6.0	54,903,084	7.9	2.2	1,530,319	5.5	71,061,367	6.3	2.2
Business Activities	339,115	1.7	29,344,146	4.2	1.2	611,895	2.2	46,819,561	4.2	1.3
Public Admin.	3,469,728	17.6	43,051,599	6.2	8.1	4,785,754	17.3	62,138,378	5.5	7.7
Education	1,402,778	7.1	36,437,698	5.3	3.8	1,937,700	7.0	54,981,728	4.9	3.5
Health/Social Work	554,140	2.8	19,199,248	2.8	2.9	1,068,606	3.9	38,997,444	3.5	2.7
Art/Sports/Leisure	203,849	1.0	6,362,058	0.9	3.2	920,942	3.3	13,254,646	1.2	6.9
Other Service Activities	380,919	1.9	15,075,572	2.2	2.5	532,592	1.9	21,178,561	1.9	2.5

Note: *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urce: National Account, The Bank of Korea, each year